

#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 본당 소식

### ◆ 견진 교리 및 견진 성사 안내

- 일시: 4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3-5시
- 견진 성사: 5월 24일 주일 미사 (주교님 집전)

### ◆ 구역별 가정 면담

- 일시: 주일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내 신부님 집무실
- 면담순서: 황석두 구역, 이호영 구역
- 지참물: 교적, 교무금 약정서, 신앙현황서

### ◆ 오늘 병자 봉성체가 구역 면담 후 있습니다.

### ◆ 5월성시간 안내

- 일시: 5월 1일 금요일 미사 후
- 성시간 참여를 통하여 예수 성심을 묵상하고 성심의 은총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사순 애금함 제출

나누어 드린 사순 애금함 80개 중, 지난 주까지 약 40개만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순 애금함을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교우들께서는 부활시기 중 미사 전후에 사순애금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모회 모임

- 일시: 오늘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 ◆ 김제준 구역모임

- 일시: 5월 2일(토) 저녁 7시
- 장소: 구역장 자택 (614-218-2662)

### ◆ 친교 준비 봉사자

- 4월 26일: 박희영      5월 3일: 최영자

### ◆ 4월 친교 후 정리 봉사: 정하상 구역

###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이며, 지난주까지 모금액은 \$50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26.00
교 무 금	\$1,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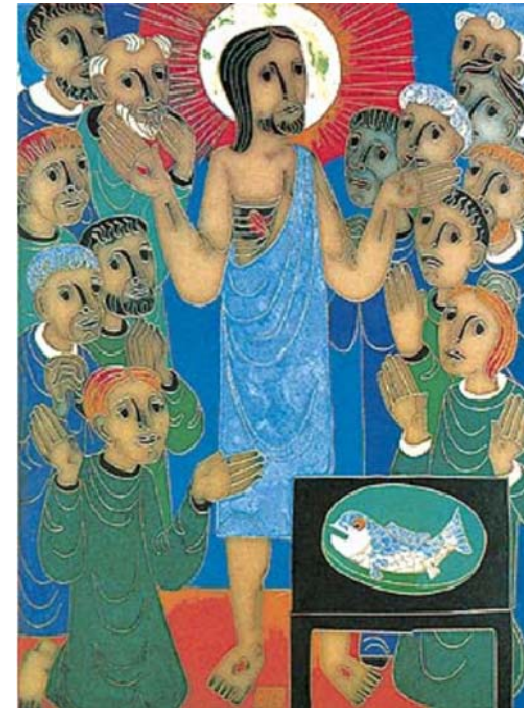
- 교 무 금: 사윤진 신현대 고상식 김미정 김성용 김한식



#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부활 제3주일 (이민의 날) April 26, 2009



<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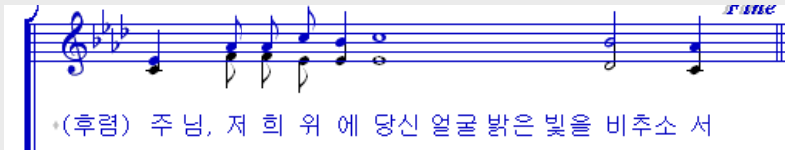
에기노 바이너트(1920-), 칠보, 작가소장, 독일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제 1 독서 사도행전 3,13-15. 17-19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으나,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화답송



제 2 독서 요한1서 2,1-5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4,35-48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서울대교구 상설고해사목부

새 순이 가날프게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나뭇가지에 자신의 존재를 선보이는 봄이었습니다. 저는 산속 피정의 집에서 나무를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위로 올라갈수록 줄기가 가늘어지는구나. 밑으로 내려올수록 줄기는 굵어지고 튼튼해지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버리지 못하고 모두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와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지. 그러니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자연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맨 위의 나뭇가지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리기에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저 나뭇가지도 자신의 역할이 있을까? 그래, 맨 위의 가지는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태양이 떠있는 곳으로 나무를 안내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저 위의 어린 듯 보이는 가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도 책임자가 하는 역할이 구성원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고 주고 삶의 지혜를 통해 바른 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의 책임자도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부활이 되면 언제나 교우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싶으시죠?” “네!”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 “매일매일 죽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올라가는 만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고 오르면 여름 태풍이나 비바람에 뿌리까지 뽑혀 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에게 죽는다는 것은 곧 부활의 시작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연처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도 죽는 것입니다. 아끼고 절약하여 모은 재물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내어 놓는 것도 자신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 안에는 이미 부활의 싹이 움트고 있으며 부활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짧은 한마디에 제자들은 그동안 겪었던 불안, 슬픔, 절망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걱정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 한 마디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모두 녹아 있으니 더 물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식사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신 후 당신이 겪으셔야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 주님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부활하여 자신들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에는 더 강해진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우선 날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을 통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 또한 “주님, 전 괜찮아요. 당신으로 행복하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을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390 단	1명	5,423단	33명
이호영	70 단	1명	18,869단	123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460단	2명	2/22/04 - 4/19/09 (270주)	

총누계: 212,992단 12,757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4월26일	5월3일
해설자	서경환	박귀영
독서/봉헌	이호영 구역	황석두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십자가의 모후

오늘의 성가

- ♫ 입당: 137      ♫ 봉헌: 218
- ♫ 성체: 154 162      ♫ 파견: 138